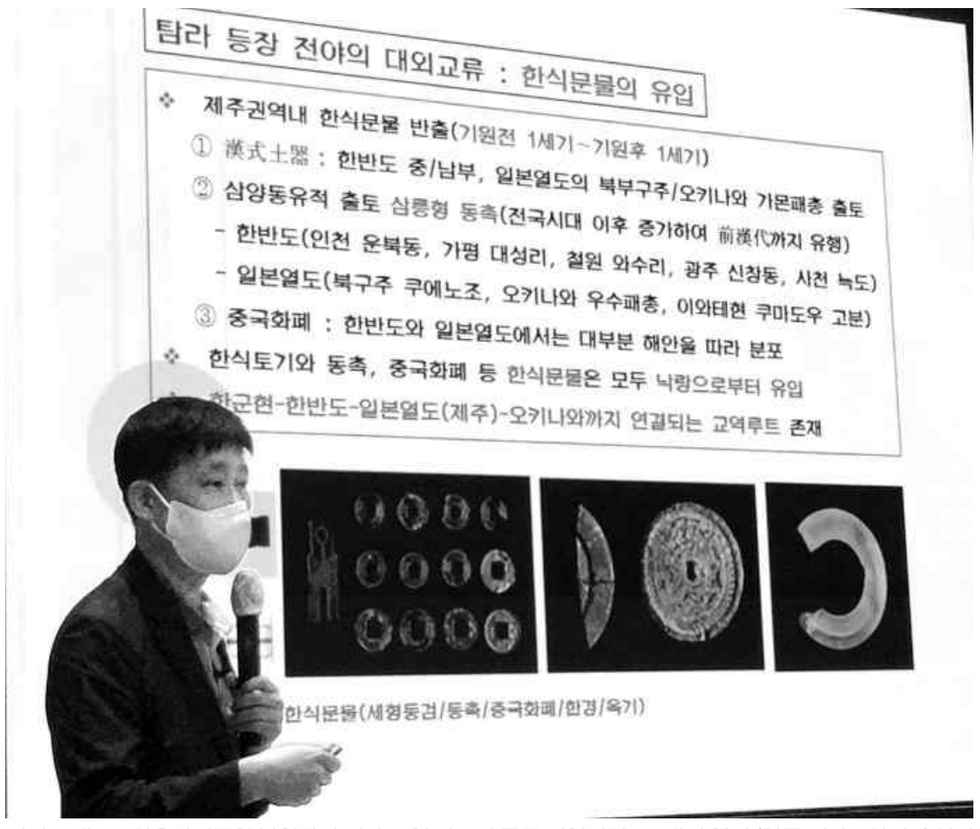
"탐라 성장, 마한과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 해"

광주일보·호남문화재연구원 문화강좌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탐라권역 마한계 유물 다수 출토
영산강유역 거점으로 교역 개척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이 지난13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 강좌에서 강연하고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 제공〉

"고대 탐라의 성장과정에는 영산강 유역 집단과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3일 광주일보사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신흥남)과 공동개최한 '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탐라역사문화권 강좌에서 '고대 탐라의 대외교류 특징'을 이같이 요약했다.

김 부원장은 "탐라권역에서 3~5세기대 출토되는 외래계 유물을 살펴보면 영산강 유역의 범마한계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며 "탐라를 대표하는 외도동식토기와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토기들이 함께 출다는 것은 같은 시기 탐라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의 마한세력과도 긴밀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실제 탐라권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성행했던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와 양이부호(兩耳附壺)가 다수 발굴된다. 역으로 제주산 토기도 사천 늑도패총, 해남 군곡리 패총, 나주 복암리 유적과 수문패총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는 "탐라는 3세기 후반~4세기대까지 변·진한으로부터 공급받던 철을 수입하기 위해 김해지역에 성립된 금관가야 교역루트를 개척했다"며 "이는 영산강 유역을 거점으로 경제적인 분야의 선진문물 수입을 지속하는 한편, 정치적 교섭이 중요한 철의 수입은 아라가야와 연결되는 교역루트로 전화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탐라 고대사의 여명과 성장과정 등도 소개했다. 김 부원장은 "탐라 출현 이전의 제주의 기층문화는 주호(洲胡) 집단이며, 탐라 정치체제의 등장은 3세기를 전후한 때"라며 "탐라는 한반도의 정치적 영역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백제의 영토확장과 신라의 삼국통일기에는 신속, 혹은 경략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외교권이 위임되거나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제주지역 고대사에 대한 최근 경향도 소개했다.

"일부 문헌사쪽에서 고대 제주를 탐모라, 하침라 등으로 비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정황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 학계의 연구경향은 이들 지역을 전남 서남해안 지역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남해안 지역의 거점적인 교역항로상에 있던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는 제주 고대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주에는 고총고분이 발견되지 않아 탐라의 지배계층에 대한 위계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대에 긴밀한 교류를 했던 마한의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탐라 연구도 진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좌는 지난해말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마한(馬韓) 역사문화권에 광주권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광주일보사와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지역민의 지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넓히고 타 문화권과 비교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는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예맥역사문화권 강좌가 진행된다. 지난 강좌는 유튜브(한국 역사문화권의 성격과 의미)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호남문화재연구원 기획사업실(전형민 061-383-3640).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출범

(사)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가 지난 13일 광주 서구 JS컨벤션에서 공식 출범했다. 〈사진〉

한국조경협회는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부산, 울산, 대구·경북에 지회를 두고 있다.

지역 조경 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조경인을 중심으로 지회 설립을 추진했다.

지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IFLA(세계조경가협회) 산업전과 총회 준비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회장을 맡은 김경섭 삼성물산 호남센터장은 14일 "광주와 전남은 관목, 잔디를 비롯해 식물 소재 생산이 강점"이라며 "조경식물 생산자가 더 나은 조경공간을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를 높이고 소재 개발, 정책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전남적십자, 기아봉사회 기부금품 누적 1억원 현판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및 기아적십자봉사회가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누적 1억 원을 달성해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아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016년 결성돼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현판식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갓파더(재)	30 930 MBC 뉴스 55 국회 추경안 정부 시정연설	55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	00 윤석열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35 기분 좋은 날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00 붉은 단심(재)	15 이 맛에 산다(재) 45 뚝딱구조대 2(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과학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KBS광주 특별기획 남도스페셜(재) 55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 - 우주수호대(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연중 라이브(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휴먼다큐 호남, 호남인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꽈배기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붉은 단심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우리는 오늘부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튜디오 K	00 스포츠 매거진 40 포비든앨리 시즌2	40 5.18 특선다큐 쿠데타의 역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뽀롱뽀롱 뽀로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07:30 엄마 까투리
0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출동! 슈퍼윙스
08:50 슈퍼두퍼 잉글리시
09:05 그린조끼 구조대
09:20 꼬마버스 타요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50 EBS 다큐프라임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05 클래스 e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5:40 지식채널e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7:45 출동! 슈퍼윙스(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9:00 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4월 16일 己巳)

☎ 010-9790-8237

子 36년생 대세로써 자리 잡았으니 강구하더라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48년생 급하게 서두른다면 완성에 이르던 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60년생 변화무쌍한 가운데 희망의 조짐이 나타난다. 72년생 지속 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84년생 실효성이 중하다. 96년생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입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0, 69

丑 37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49년생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61년생 파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73년생 허심탄회한 토로가 물꼬를 트게 하리라. 85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97년생 간발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81

寅 38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어 나가는 점이 없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50년생 현실의 역경에 순응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늘어난다. 62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74년생 길징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86년생 백 지 한 장의 차이가 될 것이다. 98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14, 88

卯 39년생 형세에 지배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51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63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75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87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99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31, 80

辰 40년생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52년생 가까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게 될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별 다른 의미가 없겠다. 64년생 굽은 것은 바로 펴자. 76년생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발생 자체에 의미를 갖게 되리라. 88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00년생 소용없는 일이니 내버려 둬라. 행운의 숫자 : 39, 92

巳 41년생 해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느니라. 53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65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7년생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도다. 89년생 인식한 즉시 대처하라. 01년생 반복성에 속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6, 73

午 42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54년생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66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78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90년생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라. 02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7

未 43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55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67년생 오리무중의 와중에서 가까스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9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한 때이다. 91년생 자료를 잘 살펴라. 03년생 소홀함은 곧 실패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6, 71

申 44년생 미리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56년생 외관에 치중하다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68년생 불가항력적인 구조가 설정될 것이니 받아들여라. 80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92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04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85

酉 33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 것이 잘 맞아 떨어질 수다. 45년생 별 것이 없으니 평상심을 유지하라. 57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69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음이 백 번 나을 것이다. 81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93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8, 53

戌 34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58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70년생 관점에 따라서 판이할 것이니 폭 넓게 대응하라. 82년생 너무나 비슷비슷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94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7, 55

亥 35년생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47년생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보태진다. 59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71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83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95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행운의 숫자 : 43, 86